

배경사



제19장 바울복음의 기원(2)

Jesus

- 바울의 복음:B. 기독교론
 - 1) 서론, 2)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 바울의 복음:B. 기독교론
 -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 (1) 성경 본문들, (2) 개념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 (3) 아담 기독교론의 기원에 대한, (4)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 바울의 복음:C. 구원론

저자: 김세윤, 출판사: 엠마오



5. 바울의 복음:B. 기독교론

1) 서론

- ▶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복음을 제일 먼저 기독교론적으로 정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갈 1:12, 16),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고후 4:4),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엡 3:8).
- ▶ 바울의 사도적 선포 주제는 “주” (고후 4:5), 하나님의 아들 (갈 1:16; 고후 2:19)인, 십자가에 못박히고 (고전 1:23) 부활한 (고전 15:12) 예수 그리스도.



5. 바울의 복음:B. 기독론

2)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1

- ▶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거나 예시하는 본문들에는 그리스도 (고후 4:4-6; 5:16ff; 갈 1:12; 엡 3:1-13; 빌 3:3ff; 골 1:27), 주 (고전9:1; 고후 3:16-8; 4:5; 10:8; 13:10; 빌 :8)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갈 1:16;)등 기독론적 칭호들 등장.
- ▶ 바울은 회심 전 이미 이 칭호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바울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을 (신 21:23)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것은 명백히 신성모독.



5. 바울의 복음:B. 기독론

2)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2

- ▶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체험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받은 분이라는 것 깨닫게 됨.
- ▶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관해 선포한 내용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됨.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나타났던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를 해석하기 위해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대교회 선포 공유.
- ▶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은 바울의 부활절. 부활절 경험에서 발전된 초대 교회 기독론적 이해들이 그 순간 바울에게 사실로 확증.



5. 바울의 복음:B. 기독론

2)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3

- ▶ 바울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독교 신앙고백만 아니라, 그 신앙고백 속에 담겨있는 사상들을 받아 들임.
- ▶ 바울이 이전에 “예수는 주시다”라는 기독교 신앙고백을 시 내산 하나님 모독으로 간주했다면, 이제 그는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그의 교회와 전 우주의 주라는 것을 믿게 됨.
- ▶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높임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자, 바울은 그 분이 메시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음.



5. 바울의 복음:B. 기독론

2)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4

- ▶ 단지 그 분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으로 고백하던 다윗 계열 메시아라는 의미 보다 더 깊은 의미.
- ▶ 곧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에 있으면서 창조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동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 바울은 십자가에 못박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계시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신적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로서 토라를 대신하셨고, 이전에 지혜로 묘사되었던 그분이라는 사실 깨달음.
- ▶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로 바울 복음 내용 (갈 1:15f; 롬 1:2ff; 고후 1:19f; 오전 3:22-9:20).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1

(1) 성경 본문들

- ▶ 그리스도를 하나님 형상으로 칭함 (고후 4:4; 골 1:15; cf. 빌 2:6)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또 그 형상으로 변화받는다라는 사상이 신약 중 바울서신에만 명료하게 나타남은 의미심장.
- ▶ 바울은 로마서 8:29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증거 (참조: 고린도후서 3:18과 빌립보서 3:21).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2

(2) 개념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 ▶ 형상기독론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특유한 이해와 표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부르는 형상기독론의 한 요소는 아담 기독론, 또 한 요소는 지혜기독론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지혜로 인식하는 것.
- ▶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칭하는 이해 배경은 창세기 1:26 근거로 일부 추측.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개념이 바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부르도록 이끌지 않았는가 하는 것.



6. 바울의 복음:B. 기록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3

(3) 아담 기록론의 기원에 대한 가설들

- ▶ 지혜기독론과 아담기독론 배경을 영지주의와 필로 글에서 찾으려는 Jervell의 주장이 신빙성 없고 그러한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함.
- ▶ Wedderburn은 영지주의자들이 창세기 1-3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지주의적 인간 신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 287쪽.
- ▶ 바울의 지혜 기독론과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배경은 그의 유대교적 배경과 기독교적 배경으로 충분히 설명가능.
- ▶ 하늘의 영적 인간이 물질세계로 떨어졌다는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영지주의적 개념은 바울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없음.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4

(4)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1

- ▶ 바울의 아담 기독론과 하나님의 형상기독론 사이의 우선 순위를 바꾸어 놓고 과연, 바울이 앞서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는 사상이 유추될 수는 없었을까 김세윤은 제안.
- ▶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영광 중 나타나신 높임받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도.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 현현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이해하면, 바울의 독특한 기독론 배경 설명 용이.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4

(4)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2

▶ P. Peine는 "성령의 체험으로서의 바울의 회심"에서 주장한다. “바울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삶을 충만함으로 압도했던 그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이 신성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고후 4:4; 골 1:15), 혹은 하나님 능력 (고전 :24), 또 “영광의 주” (고전 2:8)로 부른다. 따라서 그는 천상의 그리스도를 그의 외관상의 형상을 명시하여 칭하고 있는 것이다.”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4

(4)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3

- ▶ 이러한 표현 속에서 O. Michel은 다메섹 체험 자체가 근거하고 있음을 본다.
- ▶ 고후 4:4과 골 1:15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물질계로의 나타나심” 이라는 의미를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



6. 바울의 복음:B. 기독교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5

(5)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개념 기원: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현현 -1

- ▶ 바울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와 실제로 하나님 아들같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 그리스도의 현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신 사건으로 부르는데서 확인.
- ▶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였을 것.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5

(5)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개념 기원: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현현 -2

- ▶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로서 보좌에 앉아 있는 다메섹의 환상은 파루시아의 예표. 그리스도는 신성을 육신적으로 체현한 분, 그는 하나님과 달리 보이는 존재.
- ▶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 (골 2:9).
- ▶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개념은 점차 발전, 그 시작은 다메섹 도상 그리스도의 현현.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5

(5)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개념 기원: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현현 -3

▶ 빌 3:20f도 좋은 증거. 빌립보서 본문은 “(그리스도)그의 영광의 몸”에 대하여 언급. 이것은 고린도전서 15:49; 로마서 8:29; 고린도후서 3:18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높임받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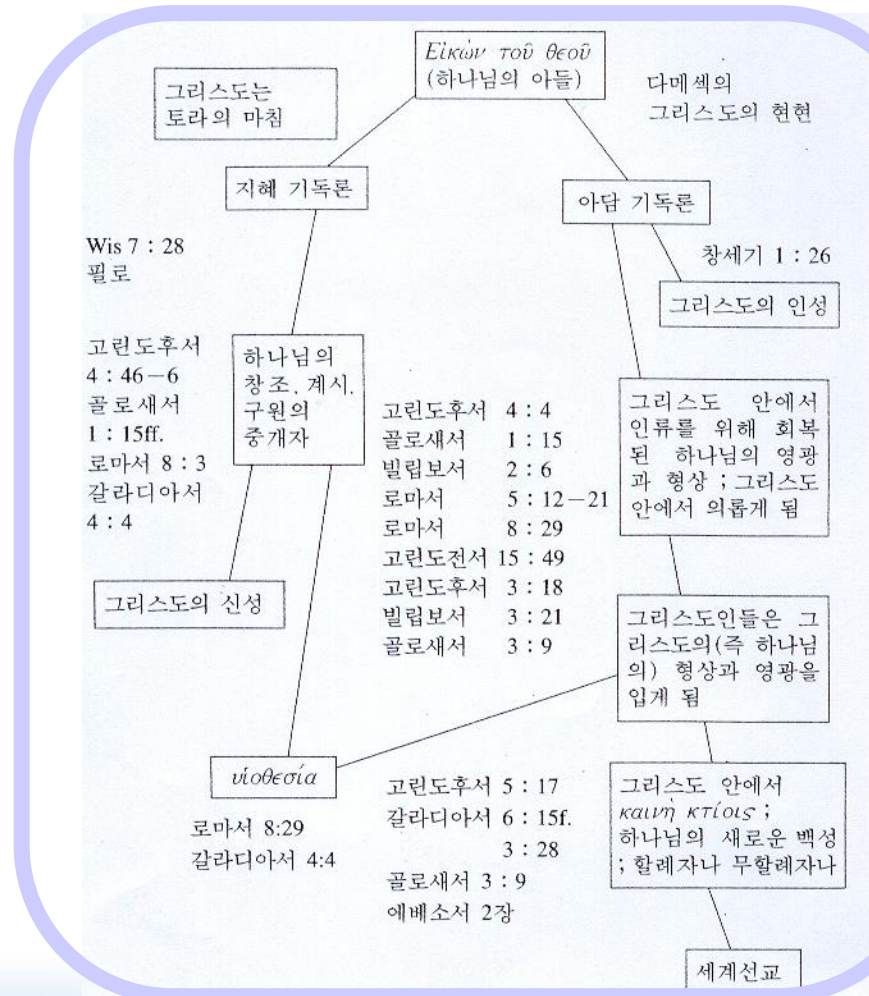
6. 바울의 복음:B. 기독론

3)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5

(5)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개념 기원: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현현 -4



6. 바울의 복음: B. 기독교론



7. 바울의 복음:C. 구원론

로마서 3:21~26 해석 -1

- ▶ 그리스도께서 피로말미암는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다.
- ▶ “아무도 율법으로, 혹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였다”는 깨달음에서 바울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 곧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육신에 죄를 징벌하심으로 이루셨다(롬 8:3)는 뜻.



7. 바울의 복음:C. 구원론

로마서 3:21~26 해석 -2

- ▶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보통 법적인 뜻.
- ▶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의“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을 말하는 것,
- ▶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이루신 구속 결과가 나타남.
- ▶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구원이 되심 (고전 1:30).
- ▶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짐.



7. 바울의 복음:C. 구원론

로마서 3:21~26 해석 -3

➤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롬 1:16).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음 (466쪽.) “아무도 율법으로 (혹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였다”는 깨달음에서 바울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롬 3:21). 여기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것이 율법 행위를 떠나서 얻게 된다는 의미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육신에 죄를 징벌하심으로 이루셨다는 의미 (롬 8:3).



7. 바울의 복음:C. 구원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1-26)

